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전라도천년 1000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전남농업

VOL. 227

2019년 4월 첫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농촌진흥청, 조생종 다수성 조사료 벼 '조우'개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담양군, 딸기 종묘 보급기반 조성에 '탄력'
해외 농업정보 인도네시아로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품목 리스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 5

-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 ~ 9도, 최고기온 : 14 ~ 19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2 ~ 5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 6

- 향후 산지 쌀 가격 하락폭 확대 예상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9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3

- 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14

- 양봉농가, 등검은말벌 방제 시범사업 효과 톡톡

▸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

▸ 농촌진흥청, 조생종 다수성 조사료 벼 '조우'개발

▸ 주말 '꽃샘추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준비 철저

▸ 인삼 '잿빛곰팡이병·점무늬병' 출아 전부터 관리해야

▸ 생약명 같고 '종(種) 다른 약초' 바로 알고 재배하세요

▸ 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

▸ 농촌진흥청, 과수·밭작물 봄철 저온피해 예방 당부

▸ 벼 비래해충 정보 및 멸구류 간이 분류법

6. 정책 동향 24

▸ 전남도, 우수 농식품 공영홈쇼핑 판매 지원

▸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 과태료 등 엄정 대응키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6

▸ 여수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여수시, ‘농기계 안전사고 경각심 높인다’

▸ 나주시,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농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

▸ 담양군, 딸기 종묘 보급기반 조성에 ‘탄력’

▸ 담양군,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총력’

▸ 곡성군, 블루베리 조기 출하 시작

▸ 곡성군, 토란 넘버원 고장 명성 굳히기에 나서

▸ 화순군, '과수화상병'예방에 총력 경주!

▸ 강진군, 체리 등 유망과수 확대 추진

▸ 해남군, "해남배추 판로확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영암군, 배 꽃가루 채취실 운영

▸ 함평군, 올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34동 지원한다

8. 해외 농업정보 ····· 39

▸ 인도네시아로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품목 리스트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1

▸ 농진청,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농식품 구매 변화 분석

10.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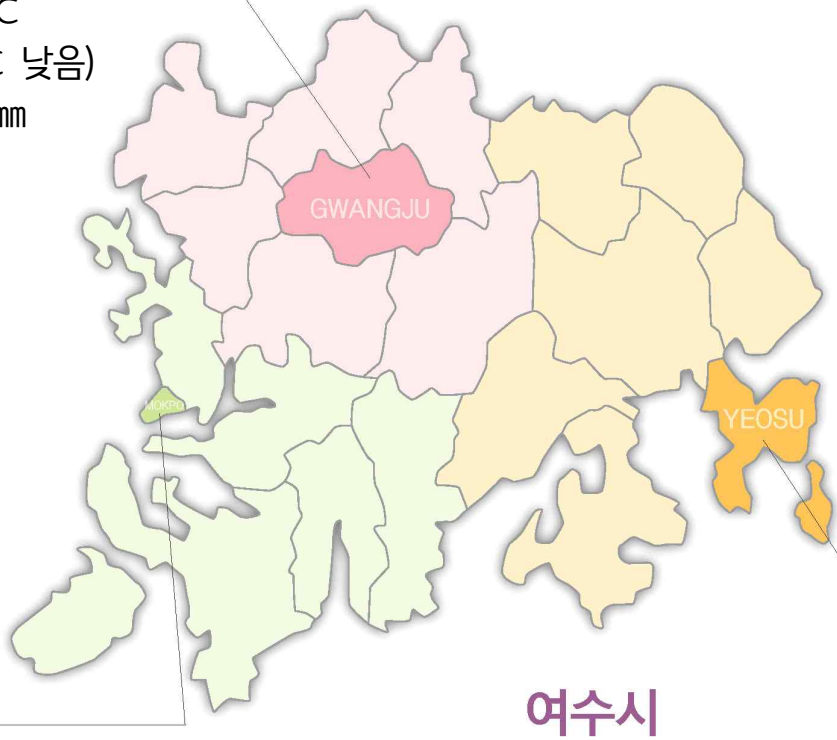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0.4℃
  (평년대비 0.5℃ 낮음)
- 최고기온 : 16.1℃
  (평년대비 1.3℃ 낮음)
- 최저기온 : 4.7℃
  (평년대비 0.6℃ 낮음)
- 강 수 량 : 2.0㎜



목포시

- 평균기온 : 9.7℃
  (평년대비 0.5℃ 낮음)
- 최고기온 : 14.0℃
  (평년대비 1.7℃ 낮음)
- 최저기온 : 5.4℃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2.0㎜

여수시

- 평균기온 : 11.1℃
  (평년대비 0.1℃ 낮음)
- 최고기온 : 15.6℃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6.7℃
  (평년대비 0.8℃ 낮음)
- 강 수 량 : 3.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향후 산지 쌀 가격 하락폭 확대 예상

수확기 이후 쌀 가격 소폭 하락

- 2019년 3월 15일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kg 기준 19만 2,772원으로 수확기 평균가격 대비 0.4% 낮았다.
- 초과공급 발생 예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산지 기대심리로 쌀 가격은 11월 상순까지 상승하였으나, 11월 중순 정부의 구곡 5만톤 공매 이후 약보합세로 전환되었다.
- 그러나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높은 벼 매입 가격(전년 대비 28% 내외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 산지 쌀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 농업관측본부 표본 산지유통업체의 3월 원료곡 매입가격은 지역 및 품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62천원/40kg 내외로 1월과 2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고 여유가 있는 업체들이 출하를 자제하여 산지유통업체간의 벼 거래가 둔화되면서, 원료곡이 필요한 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에 출하될 농가 물량 전년보다 많아

- 농업관측본부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9년 3월 상순 농가 재고량 (시장출하용)은 전년보다 7.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아직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부 농가들이 원료곡 출하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정부로의 출하는 시장격리 조치가 있었던 전년보다 49.0% 감소한

반면, RPC로의 출하는 상대적으로 증가(전년 대비 18.6%)하였다.

- 수확기 이후(1~2월) 산지 유통업체의 총 벼 매입량은 수확기 격리가 있었던 전년보다 15.7%(1만 3천 톤)증가한 9만 3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 다만, 산지의 유통경색과 일부 농가들의 출하 자제로, 수급 균형을 이루었던 2016년산과 비교(9만 8천 톤)하면 매입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 2019년 1~2월 농협과 민간RPC의 총 벼 매입량은 각각 6만 3천 톤, 3만 톤으로 전년대비 15.2%(8천 톤), 16.9%(4천 톤)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경기까지 재고 소진 어려울 수 있어

- 2019년 1~2월 산지유통업체의 총 판매량은 29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9.7%(7만 3천 톤) 감소하였다.
- 민간RPC의 판매는 전년 대비 8.5%(7천 톤), 농협 판매는 23.0%(6만 6천 톤) 감소하였다.
- 2월말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전년대배 26.0%(21만 톤) 증가한 101만 9천 톤으로 조사되었다.
- 산지유통업체의 월 평균 순 판매량(3~8월)을 감안할 경우, 재고(2월말 기준)는 7.1개월 후인 10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금년 재고 예상소진 시기는 통상적인 신·구곡 교체(9월 중·하순경) 시기보다 늦고, 신곡출하가 집중되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구곡 처리를 위한 저가출하가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4. 01 .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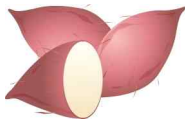
쌀(일반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kg	49,380	49,380	↑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4,400	40,200	↑ 22.8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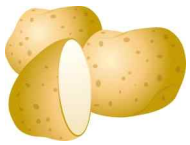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35kg	189,200	189,200	↑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550	174,500	154,200	↑ 22.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kg	35,400	34,00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300	36,630	27,507	↑ 28.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kg	31,400	31,800	↓ 5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600	71,850	33,323	↓ 5.8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kg	3,660	3,700	↓ 57.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75	8,525	7,602	↓ 51.9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8kg	4,200	4,000	↓ 3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05	6,700	5,724	↓ 26.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0개	39,000	46,667	↓ 2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000	50,167	49,344	↓ 21.0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개	14,400	16,000	↓ 3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100	23,100	18,680	↓ 22.9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60kg	1,157,200	1,177,2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7,200	1,150,000	742,000	↑ 56.0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kg	48,000	57,800	↓ 1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7,500	59,350	47,500	↑ 1.1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kg	135,000	135,000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40,000	140,000	↓ 3.6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kg	14,700	14,200	↑ 15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30	15,400	19,406	↓ 24.3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0kg	26,600	25,600	↑ 1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600	23,900	23,873	↑ 11.4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kg	1,180	1,160	↓ 2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0	1,520	1,770	↓ 33.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5kg	23,000	24,600	↓ 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300	24,965	25,605	↓ 10.2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개	15,200	16,200	↓ 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600	16,150	15,947	↓ 4.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kg	32,200	33,800	↑ 1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250	27,550	30,507	↑ 5.5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5kg	26,600	28,400	↑ 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900	20,050	23,047	↑ 15.4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kg	38,800	39,4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200	42,650	41,728	↓ 7.0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5kg	52,200	50,600	↑ 9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000	39,550	42,323	↑ 23.3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kg	35,600	35,4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550	35,200	34,687	↑ 2.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4,667	↓ 5.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kg	11,400	11,600	↓ 1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650	13,150	12,353	↓ 7.7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2kg	7,000	6,8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50	7,800	8,142	↓ 14.0

축산물(소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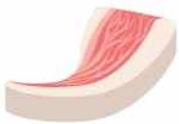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0g	7,849	7,912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791	7,875	7,137	↑ 10.0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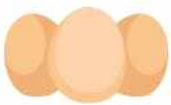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kg	5,265	5,295	↑ 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61	4,902	5,432	↓ 3.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00g	1,756	1,725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21	1,773	1,827	↓ 3.9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30개	5,024	4,855	↑ 1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20	4,217	5,746	↓ 12.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	1주일전 (3/25)	전년대비
1L	2,620	2,620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0	2,516	2,541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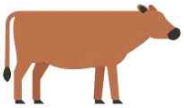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4. 01 .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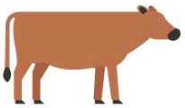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11	5,552	5,729	↑ 1.1	↓ 2.1
거세	6,685	6,575	6,647	↑ 1.7	↑ 0.6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37	3,177	3,119	↓ 1.3	↑ 0.6
수	3,663	3,660	3,753	↑ 0.1	↓ 2.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08	3,684	3,54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1	↑ 1.7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0	386	18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6	↑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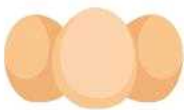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70	345	35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2	↑ 5.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700	1,660	1,37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4	↑ 24.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72	747	68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7	↑ 27.3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3,1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9.8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 전남농업기술원·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 농식품 수출 지속적 교류 희망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군연합농협RPC(이하 '농협RPC')에서 생산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지난 2월 26일, 미국 뉴저지 주로 3.2톤의 선도 물량을 수출한 후, 3월 22일 농협RPC와 SW 그린라이프, 전라미향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미국 수출에 발돋움을 내딛었다.
- 이번 협약은 할랄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미국 시장 등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완도 쌀의 강점을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 앞으로 농협연합RPC에서는 5월 중 계약 체결 후, 매달 12톤 씩, 약 100톤 가량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 한편 군은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현대화 시설 교체와 공장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해풍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브랜드를 출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에 기여했다.
-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쌀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의 가치가 향상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완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 수출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완도 농·수산업 동반성장으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양봉농가, 등검은말벌 방제 시범사업 효과 톡톡

- 최근 3년간 여왕벌 10만여 마리 포획... 조기 방제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 기술 시범사업으로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 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처음 확인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 토종벌과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등검은말벌의 먹이는 85%가 꿀벌로, 이로 인한 벌꿀 감소량은 약 35%로 추정된다.
-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나타나 5월 말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한다. 가을이 되면 여왕벌 1마리에서 3,000~5,000마리의 등검은말벌이 증식하므로 이른 봄 여왕벌 방제만으로도 3,000여 마리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 3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국에서 등검은말벌 여왕벌 10만 5,000여 마리, 일벌 151만 3,000여 마리를 포획해 10만 여 봉군 억제 효과를 거뒀다.
- 이를 통해 봉군 피해는 20~30% 가량(1,7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에는 특수 첨가제가 들어간 봄철용, 가을철용 유인액을 제조했으며, 말벌류 유인에 최적화된 유인키트를 만들어 등검은말벌 포획 능력을 높였다.

*출처 : 농촌진흥청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

- 대체로 평년 수준...이상기상 대비, 인공수분 준비 철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에 따라 올해 배와 복숭아의 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9일까지 빠를 것으로 예측돼 인공수분 등 개화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배 '신고' 품종과 복숭아 '유명' 품종의 꽃 피는 시기를 예측했다(3월 18일 기준).
- 개화 시기가 빨라진 데는 올해 1, 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개화기를 결정짓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온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 다만, 개화 시기는 3월 이후의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이 발생할 경우 실제 꽃 피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이에 과수원의 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 인공수분 등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둔다.
-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개화기인 4월 상순과 중순의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높고, 강수량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빠른 개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먼저, 인공수분 작업을 준비한다. 이슬이 걷힌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다. 이튿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늦은 오후까지 진행한다.
-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수분도 두세 차례 하는 것이 좋다. 개화기가 빨라지면 늦서리 피해 가능성이 큰만큼 방상팬 점검 등 동상해에 대비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조생종 다수성 조사료 벼 '조우'개발

- 동계 사료작물 연계 쉽고 질 좋은 조사료 연중 생산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친환경 조사료로 이용하기 좋으며 동계 사료작물과 연계 재배가 쉬운 사료용 벼 '조우' 품종을 개발했다.
- '조우' 품종은 기존의 사료용 벼에 비해 수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 이삭 패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으로 동계 사료작물과 연계재배도 쉽다.
- '조우'는 가소화양분총량(TDN)1)이 72.2%로, 사료로서의 영양가 지표도 높아 사료작물인 IRG나 청보리와 비슷하거나 높았다.
- '조우'는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평야에서 재배할 수 있다. 농가에서 품종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료 가치를 높이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 최대 수량을 확보하려면 질소비료 18kg/10a가 필요하다.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테퓨릴트리온 성분을 포함한 제초제를 사용하면 약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사료의 영양가치와 알곡의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삭이 팬 후 30일께 수확하는 것이 좋다. 늦게 수확하면 지상부 수량은 다소 높아지지만 영양가치나 가축의 소화율은 떨어질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김병주 과장은 "사료용 벼 '조우' 재배로 연중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도 좋아 쌀 수급 조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주말 '꽃샘추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준비 철저

- 농촌진흥청, 중부지역 한파 예보에 따라 사전 관리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이번 주말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노지와 시설작물에서 저온피해가 우려됨으로 농가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기상청은 23일 전국 아침의 최저기온이 영하 5~4도를 기록하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중부지역에서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오이, 토마토 등 작물과 육묘 중인 고추모종이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시설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작물의 생장이 멈추거나 자람새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가 진 뒤에 하우스 안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남부지역에서도 시설작물 보온관리와 함께 일찍 꽃이 핀 과일나무에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물 흩어뿌리기나 '방상팬'을 활용해 과수원 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켜야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한편, 인삼밭은 걷어뒀던 해가림 차광막을 미리 내리고, 울타리나 방풍막을 설치해 생장 중인 인삼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인삼 '잿빛곰팡이병·점무늬병' 출아 전부터 관리해야

- 올해 기온 올라 발생 시기 빨라져... 예방적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 출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잿빛곰팡이병과 점무늬병 발생도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가에 철저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 상승이 빨라 인삼 싹 나는 시기가 당겨지고, 지상부에 큰 피해를 주는 공기 전염성 병 발생도 늘 전망이다.
- 잿빛곰팡이병과 점무늬병은 포자가 인삼밭의 토양 잔재물에서 겨울을 난 뒤 출아기에 날아들면서 병이 발생한다. 미리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의 밀도를 낮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삼 점무늬병은 잎, 줄기, 열매 등 지상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공기 전염성병으로 전 생육 기간 동안 발생한다.
- 특히, 바람이 불면서 출아 후의 연약한 줄기에 기계적인 상처가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난다. 이에 방풍 울타리와 해가림막을 일찍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 인삼 잿빛곰팡이병도 잎, 줄기, 열매에 나타나며, 주로 잎에 발생한다. 특히, 습기가 많으면 발생이 심해진다.
- 인삼밭에서 줄기지제부의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침입하며, 인삼머리(뇌두) 또는 줄기지제부 조직으로 급속히 병이 확산돼 뿌리가 썩고 잎에는 수침상의 병반을 만든다.
- 출아 후 이상기온으로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 출아한 인삼의 자람세가 약해져 병 발생이 확산된다. 출아 전 해가림시설과 방풍시설을 정비해 저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생약명 같고 '종(種) 다른 약초' 바로 알고 재배하세요

- 삽주와 큰꽃삽주, 천궁과 중국천궁 구분법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생약명은 같지만 기원식물, 즉 종(種)이 다른 약초를 소개하고 구분 방법을 제시했다.
- 최근 약용작물은 한약재뿐만 아니라 천연물 의약, 화장품, 생활소재, 신선식품 등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 백출은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여러 한방약의 재료로 쓰이는 약재로 위와 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식물로는 삽주와 큰꽃삽주가 있다.
- 이들은 생김새가 비슷하나 꽃 크기와 색이 확연히 다르다. 삽주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꽃이 대부분 희거나 분홍빛을 띠고 크기가 작으나, 중국에서 도입된 큰꽃삽주의 꽃은 진한 자홍색이며 크기가 크다.
- 쌍화탕의 재료인 천궁은 보혈, 강장, 진정 약으로 쓰여 빈혈증, 부인병 질환 등에 사용된다. 기원식물로는 천궁과 중국천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각 일천궁과 토천궁으로 부른다.
- 생김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일천궁은 토천궁보다 식물체 크기가 작고 마디가 더 조밀하게 붙어 있다.
- 이들은 뿌리 형태가 달라 번식 방법이 다르다. 일천궁은 크고 쉽게 쪼개지는 뿌리줄기를 종근으로 사용한다. 반면, 토천궁은 뿌리조직이 단단하므로 8~9월 뿌리 윗부분을 흙을 덮어주면 생기는 줄기마디(노두) 1~2마디를 잘라 심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

- 기계 파종 위해 일정한 크기의 병 없는 우량종자 골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콩을 기계로 재배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파종 전 씨앗 선발 방법과 토양 특성에 따른 씨뿌림 방법을 소개했다.
- 기계로 씨를 뿌릴 때 콩 씨앗은 일정한 크기로 골라야 파종기에서 배출도 잘 되고 입모도 균일해진다.
- 콩 재배의 기계화율은 64.8%로, 파종 정식에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파종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할 때보다 노동력 부담을 87% 덜 수 있다.
- 밭에서는 점파식 파종기, 논에서는 줄뿌림 파종기 사용을 추천한다. 논토양 특성상 토양 수분이 많아 씨앗 배출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병든 종자는 싹이 트지 않고 자라면서 병을 퍼뜨려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병이 없고 온전한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병든 종자는 주로 색이 변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자주무늬병에 감염된 종자는 분홍색 또는 자주색을 띠며, 발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바이러스병(SMV)에 감염되면 검정색, 갈색의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미이라병에 감염된 종자는 오그라들거나 길게 늘어진 형태로, 금이 가고 종종 희끗희끗하게 보이기도 한다.
- 감염된 종자는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며,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약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o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과수·밭작물 봄철 저온피해 예방 당부

- 봄기운 완연해도 기온 0도 이하 내려갈 경우 대비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밭작물 등 노지에서 재배하는 주요 작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최근 10년간(2009~2018) 기상상황을 분석한 자료1)에 따르면 올해 겨울(2018.12.~2019.2.)은 봄철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2013~2014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상저온)** 2014년 4월 5~6일 발생
> - 경기·충북·충남·경북·세종 지역에 저온 피해 발생(농작물 피해면적 4,895ha)
> * **(서리)** 2014년 5월 6~7일 발생
> - 전남 보성지역에 녹차 잎 탈색 등 피해(피해면적 73ha)
> ※ **2018년 4월 7~8일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6,121ha에서 과수 꽃눈 피해, 인삼 새순 고사 등 발생

- 이에 따라 현재 봄기운이 완연하더라도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 있고, 4월 초·중순에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4~5월은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저온현상이 나타나면 꽃을 피우고 있는 암술이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 또한 어린 열매는 껍질이 녹이 슨 것처럼 거칠어지는 '동녹'이 생겨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미리 대응해야 한다.
- 과수농가는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해 물을 흩어 뿌리는 살수법을 적용하거나 '방상팬'을 가동해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살수법은 장치를 통해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이 나무 표면에 막을 형성해 기온이 심하게 내려가는 조건에서도 나무 조직 표면온도를 0℃ 부근으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방상팬'은 선풍기처럼 기계바람을 이용해 과수원 내 공기를 순환시켜 차가운 공기가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준다.
- 과일나무의 저온피해는 꽃이 빨리 핀 경우에 피해가 심하므로 수시로 꽃 상태를 살펴보고, 인공수분은 2~3회 정도로 나눠 실시한다.
- 저온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열매 맺음 여부와 모양을 확인한 뒤 열매 솎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관리한다.
- 비닐하우스 등에서 모종을 키워 노지에 옮겨 심는 밭작물의 경우 모를 기를 때 밤에는 보온, 낮에는 환기 등 온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늦서리가 지난 뒤 안전하게 심도록 한다.
- 아주심기 이후 저온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비닐터널을 설치하거나 막을 덮어주도록 한다.
- 아주심기 후 식물체의 50% 이상 저온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식물체는 뽑아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는다.
-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봄철 저온피해로 인해 농작물의 성장이 늦어지거나 결실 불안정, 말라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벼 비래해충 정보 및 멸구류 간이 분류법

- 비래해충이란 -

- 동남아 및 중국남부에서 봄철 제트기류인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해충
- 국내에서 월동이 불가능하며, 장거리 이동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단, 애멸구는 국내 월동 가능 및 중국에서 비래)
- 벼의 주요 비래해충 5종 ➜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 비래해충정보 및 멸구류 간이 분류의 필요성 -

- 비래해충은 기후변화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집단의 국내로의 비래현상이 빈번함
- 비래현산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대비책은 관건해충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
- 따라서 벼의 주요 비래해충 5종에 대한 상세 정보와 이들 간의 분류법을 한 곳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벼멸구류 분류에 있어 초심자나 벼농사 농민들에게 그림과 함께 분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분류할 능력을 갖게 하여 쉽게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음.

<멸구류 간이 분류법>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김광호 063-238-3288
- 자료편집 :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우수 농식품 공영홈쇼핑 판매 지원

- 20개 업체 발굴해 29일부터 시작...연간 20억 원 매출 기대 -

- 전라남도는 우수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해 신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와 히트 상품을 생산하는 20개 농식품 업체를 발굴, 공영홈쇼핑 판매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매출 목표는 20억 원이다.
-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생산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 29일 장흥 정남진장흥표고주식회사의 표고버섯을 시작으로 보성 녹차미인 쌀, 담양 안복자한과, 영광 모시잎송편, 장성 참기름, 무안 양파즙,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을 판매한다.
-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판매 수수료는 업계 최저인 20%로 운영한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홈쇼핑 방송 판매는 지역 농식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좋은 기회”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 광양청매실농원 등 18개 업체에 홈쇼핑 판매 지원을 해 17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출처 : 전라남도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 과태료 등 엄정 대응키로

- 전남도,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해 적발 시 30만 원 -

- 전라남도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행정지도 위주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이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에서도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로 산불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지난 3월 5일 보성에서 김 모(65) 씨가 묘지 화재로 숨졌고, 일 화순에서 밤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이 모(91) 씨가 숨졌다.
- 올들어 3월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4.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4건에 이른다.
- 전라남도는 4월 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 특히 일몰 후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 방지 인력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소각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야간 감시조도 운영할 계획이다.
-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원인도 되지만, 많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된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일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벼·배·사과 등 56개 품목과 재배시설...지역 농협서 가입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가뭄과 태풍, 폭염 등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규모는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가 20%, 전라남도가 10%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된다.
-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농가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대상은 벼,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6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이다.
-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인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서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여수시, '농기계 안전사고 경각심 높인다'

- 26일부터 3일간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진행...조작법, 정비요령, 사고예방 등 -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이용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훈련장과 실습포장이다.
- 26, 27일은 관리기를 28일은 트랙터를 4시간 동안 교육한다.
- 교육 내용은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 기종별 구조와 조작법, 정비요령, 실습훈련 등이다.
- 시 관계자는 "농기계 조작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교육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나주시,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농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

- 웹사이트, 모바일 활용 11월 중순까지 운영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정밀 기상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는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 지역별 특화작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시는 영농철인 이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정밀기상 예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은 지난 2013년 서비스 구축 이후, 5년 이상의 지역별 정밀 기상 데이터를 축적, 과학적 분석 및 예측 가능한 기상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기상 이변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사용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나주시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검색, 접속한 후, '읍·면·동 기상예보'를 클릭하면 농업인 누구나 지역별 기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본 사이트에서는 읍·면·동별 3일 간의 상세한 기상정보를 비롯해 위성·레이더 영상, 주간 날씨, 기온, 강수확률, 기상 전문 예보관 및 담당 전문지도사의 기상브리핑 등이 제공된다.
- 한편, 시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축적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나주배꽃 개화시기를 평년 기온 유지 시, 오는 4월 10일 또는 전·후 2~3일로 예측했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딸기 종묘 보급기반 조성에 '탄력'

- 농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공모 선정, 사업비 확보 -

- 담양군(군수 최형식)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딸기 육묘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우수종묘증식보급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딸기 육묘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 이에 군은 자체개발한 '죽향', '메리퀸' 등의 우수한 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딸기 종묘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확대를 위해 군비 포함 총 15억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딸기 육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담양에서 자체 개발한 '죽향', '메리퀸' 등의 딸기는 당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지는 3월에도 쉽게 물러지는 다른 딸기와는 달리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고품질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녔다.
- 군은 이번 딸기 육묘센터 신축을 통해 최대 관건인 도매시장 연착륙의 조건인 재배면적 조기 확대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편 군은 담양딸기의 동남아시아 시험재배 및 확대 보급 방안 협의를 위해 4월초 인도네시아 가롯군을 방문해 담양육성 딸기 재배적응성 시험을 진행하고, 인도 케이에프바이오플랜트와의 협의로 딸기 조직배양 등 신기술 정보 수집 및 유전자원 특성 파악으로 연구 사업에 반영코자 한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총력'

- 담양군이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와 산림지에 동시에 발생하는 외래해충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밀도를 낮추기 위한 월동난 제거 및 현장기술지원에 한창이다.
-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용면 월계리, 월산면 중월리 일원 등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이 많은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월동중인 알집 94ha를 제거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월동난 제거를 위한 집중방제기간으로 설정, 피해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에 나선다.
- 또한 월동 중인 이들 해충의 알집을 제거하는 등 올해 과수농사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4월부터 알에서 깨어나 잎, 줄기 등에 즙액을 빨아먹어 농작물 생육이 나빠지고, 잎과 과일에 떨어진 배설물은 상품성을 떨어뜨려 피해를 준다.
- 이와 같은 돌발해충은 성충이 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부화개시일로부터 약 3~4주 후 80% 이상 부화가 되는 4월 중에 공동 지상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의 생존율이 증가가하고 있어 작년도 발생이 있었던 지역은 인근 산림지역까지 월동난을 제거해 초기방제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블루베리 조기 출하 시작

- 일반적인 출하 시기보다 3달 앞서, 시장 가격은 4배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곡면 박광순(70세) 씨 농장에서 지난 22일 올해 첫 블루베리를 출하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블루베리 출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는 노지에서 재배되고, 수확은 6월부터 이루어진다. 하지만 곡성군에서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재배로 수확 시기를 3~4월로 앞당겼다.
- 수확 시기가 빨라진만큼 농가는 높은 가격에 블루베리를 출하할 수 있다. 3월 22일 기준 곡성 블루베리 특품 1kg 도매가격은 6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이는 일반적인 출하시기인 6월 평균가격이 1만 5천원인 것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가격이다.
- 곡성군은 2007년부터 블루베리를 틈새소득과수로 육성해 현재 26ha의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시설 재배 비중이 높은 이점을 살려 5년 전부터 조기 재배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조기출하 규모는 30농가, 5.8ha에 이른다.
- 군은 올해도 블루베리 조기 재배와 관련해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블루베리 연구회 과제교육 및 재배관리 기술 교육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루베리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토란 넘버원 고장 명성 굳히기에 나서

- 가공식품 및 먹거리 개발, 소비시장 확대 등 전방위적 토란 활성화 모색 -

- 우리나라 토란 최대 산지인 곡성군이 토란을 지역 특화작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토란은 대부분 전남 곡성에서 생산된다. 곡성의 토란 생산지는 100ha 가량으로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남 곡성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특화 농작물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곡성토란웰빙식품명품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최근에는 토란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 식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곡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법인(곡성토란영농조합법인, 미실란, 생자연) 및 농협과 연계해 지금까지 타로미수, 토란 누룽지, 토란부각, 깐토란, 토란칩 등을 개발했다.
- 직접적인 토란 가공상품 개발과 함께 토란 생산자들이 직접 소규모 토란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토란 생산 농가가 운영하고 있는 '자매가'와는 토란 한과, 토란 조청, 토란 파이 등을 함께 개발하고,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오프라인)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토란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토란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인 토란 소비 시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 토란의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토란 맛에 익숙한 환경 만들기에도 여념이 없다. 2016년부터 곡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토란음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기존의 노력과 함께 곡성군은 향후 지역 토란 농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들을 준비 중이다.
- 먼저 지역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푸드플랜은 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소비자의 만남과 교류 등을 통한 순환형태의 소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 번째, 토란이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잡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이다. 사업단은 토란산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 가공, 홍보,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 이와 함께 세 번째로 지역 주민 누구나 토란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통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행사성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시적인 홍보 및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앞으로 곡성군에서 향토자원인 '토란'과 연계한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라는 단순한 유통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농산물 이외에 토란에 대한 역사·문화적 스토리와 기능성·효능 등에 대한 지식 등 정보가 모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과수화상병'예방에 총력 경주!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배, 복숭아, 사과 재배 농업인들에게 등록약제를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은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현상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현재는 주로 중북부 지방의 사과, 배 과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화순군 주요 과수인 복숭아, 자두, 매실 또한 발생작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 이에 따라 과수 꽃피기, 새순 나오기 직전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은 약제 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 작업도구를 자주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화순군농업기술센터(379-5423)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

강진군, 체리 등 유망과수 확대 추진

- 강진군 성전면 초입에 낯선 비가림시설농장이 생겨 군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아직 묘목 식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농장에는 머지않아 샤인머스캣 포도 묘목을 식재한다는 계획으로 한창 농장 정비 중에 있다.
- 또한 칠량면 장계리의 산 어귀에는 포크레인이 농장 평탄작업이 한창이다. 이 농장은 인근 필지와 함께 총 1.5ha 규모의 체리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미래유망과수도입사업을 추진하여 12농가를 선정, 체리, 샤인머스캣포도, 애플망고, 레드향 등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작물들은 이미 몇해 전부터 지역적응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작물들로 지정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단지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 이들 유망과수들은 관광지와 연계 판매가 쉽고 체험농장이나 가공식품 판매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면적확대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윤호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작물중 시장성과 재배적응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유망과수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과수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단기에 대단지 형성이 쉽지 않지만 향후 유망과수를 면단위 단지로 조성해 특산물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충분히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강진군

"해남배추 판로확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해남군, 4월 공모제안 "겨울배추 등 농산물 판로확대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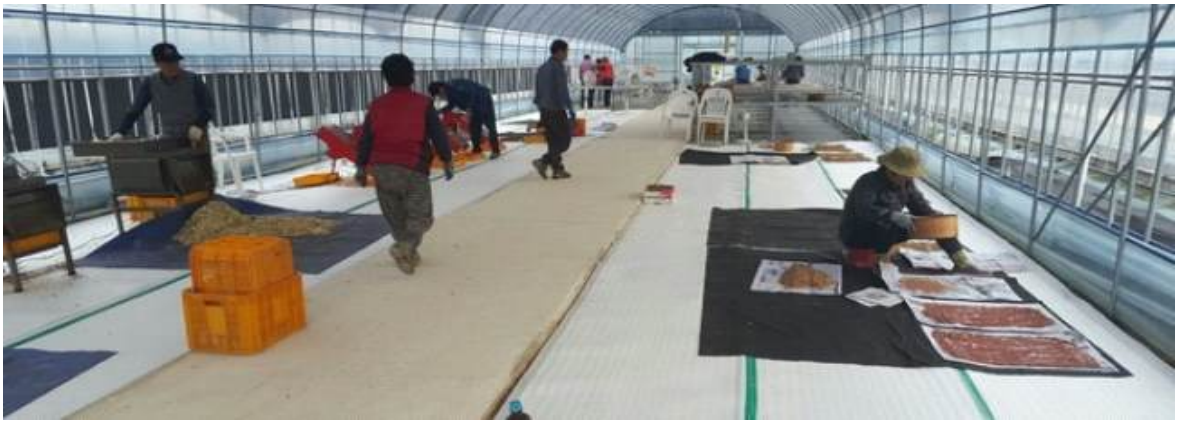
- 해남군이 4월의 군민 공모제안으로 "겨울배추 등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해남군은 매월 특정 주제를 제시해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있다.
- 4월 주제는 해남배추 등 해남군 농산물 판로확대 방안과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제안 등 2가지 이다.
- 주제에 대한 공모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군민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은 해당 부서 자체 평가와 해남군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등급이 결정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또한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 군은 "공모제안으로 수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판로확대 등 배추 수급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제안에 대해서는 소중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상반기 공모 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기획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출처 : 해남군

영암군, 배 꽃가루 채취실 운영

- 꽃가루 채취 장비 3종 80여대 준미로 농가 편의 제공 -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배 결실안정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꽃가루 채취실을 운영한다.
- 영암배 주품종인 신고배는 수꽃가루가 없어 추황배 등에서 꽃가루를 채취하여 인공수분을 하여야 고품질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꽃가루 정선기, 채취기, 개약기 등 3종 80여대의 관련 장비를 완비하여 농가들이 원활하게 꽃가루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공수분 실시로 기형과율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며, 과원 내 수분수가 부족하여 자연수분이 어려운 농가들이 배 꽃가루 채취실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말했다.
- 아울러 "만개기 전후로 늦서리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살수장치를 보유한 농가는 시험가동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서리피해를 받은 과원은 인공수분시기를 늦추어 후기에 피는 꽃에 수분작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영암군

함평군, 올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234동 지원한다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올해 지원규모는 총 234동(1동당 9.9㎡)으로, 설치비용 중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과수, 채소, 등 2ha 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도비사업) 혹은 3ha 미만의 과수, 채소, 화훼, 특작 등 농산물 재배농가(자체사업)다.
- 특히 올해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가의 높은 선호도를 고려해 1회 추경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농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또 군은 시공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후관리 미흡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월 시공업체를 공모해 총 13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 이어 이달 27일에는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요령 및 선정업체 제품 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업체가 직접 농가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산물 저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이다.
- 이윤행 군수는 “올해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체재원 마련에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군은 지역농업인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인도네시아로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품목 리스트

-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
  -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승인,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승인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 한국의 경우, '농관원'에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받아 수출 중
- 수출업체는 농관원 분석증명서(COA), 수출검역증,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Prior Notice(사전신고) 사이트 내 검역증 번호, COA번호 입력 후 출력본 자료를 바이어에 전달 후 바이어는 통관 진행
  - 분석증명서(COA) 발행가능한 품목 : 포도, 사과,쌀, 유과, 고추, 건고추, 옥수수(대가 있는), 옥수수 알갱이, 버섯류, 오렌지, 감귤, 감사, 양배수, 콩(대두), 멜론, 복숭아, 감, 배, 파프리카, 딸기, 옥수수 가루, 차(녹차, 홍차)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국가별 수출가능한 신선농산물 품목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리스트에 있는 품목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수출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3.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및 대두 선물가격, 무역상들이 스퀘어 포지션(squared positions)을 유지하며 거의 변동하지 않음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의 재고량 및 경작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무역상들이 최근 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이익을 챙기고 스퀘어 포지션(squared positions)을 유지하면서 하락했다. 시카고 거래소 5월 연질적색 겨울밀 WK9는 부셸당 4.50-4.64달러로 5센트 하락한채로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금요일에 발표될 재고량 및 경작지 보고에 앞서 무역상들이 스퀘어 포지션(squared positions)을 유지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분석가들은 미 농무부가 옥수수 경작지를 작년의 8,912만9천 에이커에서 9,133만2천 에이커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주요 옥수수 생산자인 아이오와와 네브라스카 등 서부 콘벨트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농부들의 파종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대두 수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승했다. 상인들은 여전히 미국의 농산물 판매가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잘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 농무부는 주간 대두 수출량이 최대치 90만 톤에 근접한 89만 5,000톤이라고 밝혔다. 남아메리카의 대규모 수확 전망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농진청,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농식품 구매 변화 분석

- 대형마트 · 온라인거래 선호, 외식은 줄고 집밥은 늘다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세먼지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에서 실내로 구매처가 변하고, 귤·도라지·해조류 등 건강을 고려한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식을 줄이는 대신 집밥에 대한 수요가 높고, 건강과 관련된 농식품 정보 제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온라인 강세) 미세먼지 발생 시 구매장소를 바꾸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약 21.7%인데, 선호하는 장소는 대형마트(54.7%), 온라인(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하지 않는 장소는 전통시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건강중시 품목증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때 구매를 늘리는 품목은 돼지고기·귤·도라지·해조류 등으로 응답했다. 호흡기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귤(20.5%)·도라지(11.0%)·해조류(10.5%) 등은 구입을 늘린다고 응답하였으며, 돼지고기(22.8%)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하여 과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식 줄고, 집밥 늘고) 외식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약 48.8%로 소비자의 약 절반 정도가 외식을 줄인다고 밝혔으며, 외식을 줄일 경우, 배달음식(18.9%), 즉석조리식품(6.2%) 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응답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미세먼지 관련 건강정보) 또한 소비자들은 미세먼지 증가 시 호흡기질환 예방 등 건강에 관련된 농식품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로는 호흡기 질환 등 건강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48.6%),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24.5%), 면역력 저하 방지 농식품(14.1%) 등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높았으며, 그밖에 미세먼지 정화식물(13.7%)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응답률은 60%(930가구), 표본오차 ±3.13%, 신뢰수준 95%이다.
-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농식품의 기능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경감시키는 농식품 정보제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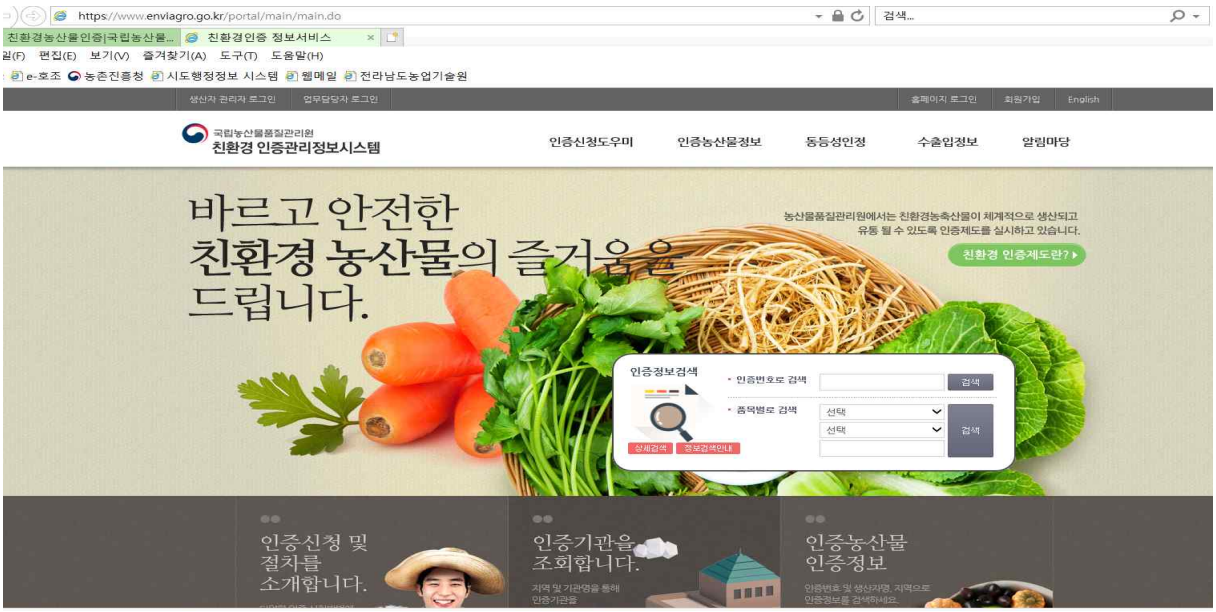
*출처 : 농촌진흥청

10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인증신청도우미, 인증농산물정보, 동등성인정, 수출입정보, 알림마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인증신청도우미에서는 인증신청안내, 인증기관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농산물정보에서는 인증표시소개, 인증정보, 직거래, 부정유통신고, 친환경인증통계,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정보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가능
- 직거래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가능
- 친환경인증통계는 조회구분, 업무구분, 기간, 시/도, 인증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인증정보보회, 정보광장, 온라인기술지원/상담,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및 작도법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 인증정보조회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조회, 전통식품품질 인증조회, 민간인증기관 지정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사건 묵인 지시 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27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